



새 천년을 앞두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성대한 밀레니엄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축전 속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피를 흘리는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장밋빛'을 기대하는 인류에게 어쩌면 '핏빛'의 새 천년이 열릴지도 모른다. 새 천년을 임용하게 내다보는 사람들은 '냉전이 끝나면 평화 가 오리리던 일반적인 예상이 빛나갔음을 상기해보라'고 말한다.

민족·종교분쟁

다. 인종·민족분쟁에 종교분쟁까지 가세하면서 지구는 오히려 '혈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이런 인류에게 부처님은 경고한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같이 싸우지 마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52개국 내전... 몸살 앓는 지구촌

종교연합단체의 활동 IARA·WCRP 등 60여곳 평화·종교화합 한목소리

종교연합단체는 비단 종교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종교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교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종교연합단체는 현재 10여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1900년 창립된 국제종교자유연맹(IARA)은 소수그룹들의 신앙의 자유와 광등을 주장해 왔다. 종교간의 공식적 차원보다는 종교인 개인끼리의 만남을 통해 종교간의 화합은 물론 환경, 경제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30여개의 크고 작은 자선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70년 창립된 세계종교평화회의(WCRP)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을 돌며 다섯차례의 회의를 열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벌이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

1988년 창립된 세계종교의회(Parliament of World's Religions)는 지난 93년 '지구촌리(global ethics)선언'을 통해 세계 평화와 종교간담을 포함한 인류의 당면문제들에 대해 '사회의 영향력 있는 조직(개발 정부 및 각 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계종교의회(WCP) 역시 93년 창설 이래 매년 세계채(World Faiths Encounter)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종교인들간의 대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 설립된 '이해의 사원(ToU)'이나 1990년 창립된 세계종교연합(IFWP) 등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각 종교인들의 논의를 통해 서로가 하나의 공동운명체임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엔 산하 종교관련 활동기구에는 미국불교연합, 아프리카-아메리카 이슬람 기구, 동유럽기독교연합, 국제종교자유연합 등 세계 각 종교단체가 구성한 NGO나 종교연합 NGO 등 5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종교의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를 표방하고 2000년 6월 발족예정인 종교연합창설준비기구(LURI)도 발족되는데로 세계문제에 대한 공동 노력을 모색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민족·종교분쟁은 '피'가 다른 민족들이 한 국가라는 정치적 단위로 묶여진 상황에서 수적·정치적 열위에 놓인 소수민족이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데서 과장된다. 같이 살면서도 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롯되는 민족분쟁은 다른 국가끼리의 영토 분쟁이나 같은 민족끼리의 정권다툼 분쟁보다 하나같이 더 잔인하며,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세계사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

21세기 종교대결 시대' 예측

식민지 해방·민족 독립 투쟁과 민족 대립으로 인한 내전, 원주민의 저항 운동 등 현재 민족·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은 세계 40여곳에 달한다. 이중 민간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모두 7백만명에 이른다.

유럽의 분쟁지역은 발칸,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이 치열한 터키, 북아일랜드 등이 대표적이며,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동티모르, 스리랑카, 티베트, 카슈미르 등이 분쟁이 시달리고 있다. 미주지역은 아이티와 콜롬비아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의 벽'을 만들고 증척할 화해의 길을 찾지 못하는 종교분쟁도 새 천년의 최대 이데올로기로 떠오를 전망이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21세기를 종교 대결의 시기로 예측한다. 특히 종교의 정치화나 정치의 종교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종교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세계 12곳. 지난 9일 종전된 세르비아

있으며, 인도도 힌두교도와 소수 기독교도들간의 갈등으로 힌두교인들의 기독교인-교회시설 습격이 계속되는 등 치안악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유혈분쟁을 치르고 있다.

불특정 다수 희생양 삼아

민족·종교분쟁과 종교분쟁은 불특정 다수를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국가대 국가간의 '고전적인 전쟁'이 아니라 양민학살이 수반되는 게릴라들과 테러분자들의 전쟁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무고하다'는 개념은 사라지고 특정종교, 특정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로만다, 보스니아, 부룬디, 수단 등지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같은 일

아프칸·코소보·수단등 3400만 난민 유랑생활 힘의 대립-배타성 원인...공존사상이 해법

아프가니스탄으로. 지난 79년 이래 20년 내전으로 2백만명이 사망하고 2백6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두번째는 수단으로 지난 83년 내전 발발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 1백90만명이 희생됐다.

분쟁이 가장 심각한 대륙은 아프리카로 수단을 비롯해 알제리, 에리트레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10여곳에서 살육, 방화 등의 참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난민만도

(세르비아 정교)와 알바니아계(이슬람교)간의 코소보사태를 비롯해 이스라엘(유대교)과 팔레스타인(이슬람교)간의 오랜 갈등, 정권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향으로 매일 무수한 민간이 학살되고 있는 알제리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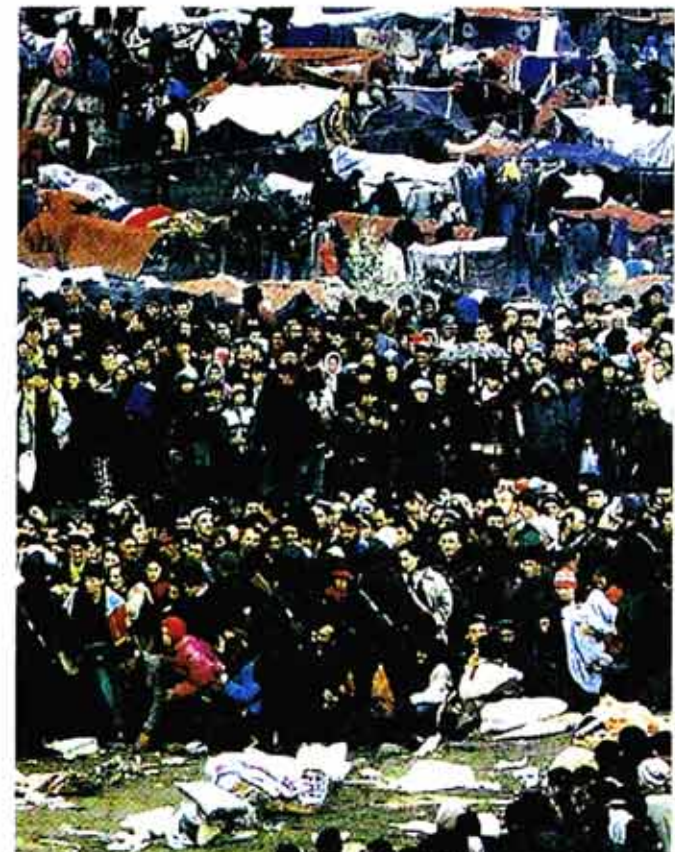
또 최근 인도네시아는 사소한 사건과 소문으로 발생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간의 갈등으로 2개월간 사망자가 1백여명에 달하는 혼란을 거듭하고

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분쟁은 분쟁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인류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전쟁으로 인한 농작물 파괴는 어린이 영양실조와 전염병을 유발시키며, 죽음을 면했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인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지난 5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종·종교분쟁 등으로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 난민이 세계적으로 1천2백40만명에 달하며, 자국내에서 거쳐를 잃고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1천8백여만명에 이른다. 또 최근 들어 3백50만명의 난민이 새로 생겨났으며 수백만명이 그들 나라에서 거쳐를 잃고 방랑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망명지와 보호지를 찾고 있는 사람이 1백만명에 이른다고 UNHCR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하지만 30년간 계속돼 온 북아일랜드 분쟁이 지난 98년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민족이나 종교분쟁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2개월간의 끈질긴 협상은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세기를 '피의 꽃'으로 채운 코소보 사태의 난민들. 사태는 평화협정체결에 의해 6월9일 78일만에 종전됐지만 난민들은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다.

지난 3월 이란의 하타이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상베드로성당에서 악수를 나눈 것도 서로 다른 문명간의 화해의 첫단추였다. 참에서 그 의미는 크다. 실로 9백년만에 만난 이슬람과 가톨릭 두 지도자는 똑같이 "모든 종교는 공통적인 바탕이 존재한다"고 선언했다.

적극적 대화가 해결 단서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분쟁의 해법은 예상외로 간단하다. 상호간의 배타성을 버리고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길 밖에는 없다. 하지만 '힘'을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천년도 '힘'에 의해서만 생존 가능하다는 대립의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서로 연결되어진 것으로 본다. 불리와 대립, 모순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연관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관계인 것이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조화가 필수적이다. 뱀을 죽이는 것이 개구리를 살리는 이치가 될 수 없으며, 뱀과 개구리와 물벌레가 못이라는 같은 터전에서 상호연관되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이치가 같다.

민족과 종족, 그리고 종교는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바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밝은 새 천년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 고집을 놓아버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자 하는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 그리고 자기마음과의 조화, 여기에 다름은 있을 수가 없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영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가톨릭과 이슬람의 지도자인 교황과 이란대통령은 지난 3월 9백년만에 만난 두 문명을 대표해 악수를 나누고 '종교의 공존'을 확인했다.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호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即輕身耐老延年不老) - 동의보감

滴天髓闡微 上下(卷)완결판 芮光海 命理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